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김지은** · 조병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가족, 교사,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영향력을 밝히는 데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에서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주목하여, 한국청소년패널자료 중 2003년 중2시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명변수는 사회적 관계 특성, 일반적 특성(개인적 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이며, 종속변수는 최근 1년간의 흡연경험 여부로 측정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 음주여부, 흡연친구의 존재, 주관적 빈곤 인식, 한 달 평균 용돈,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 중 부모의 감독, 학대, 친한 친구 애착이 흡연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피학대 경험과 친한 친구 애착은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에서는 부모감독이, 여자에서는 학교친구와의 관계에서 특히 흡연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청소년 흡연, 사회적 관계, 가족, 교사, 친구, 유대

* 본 논문은 2009년 8월에 출간된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신저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221동 425호, 02-880-2727, chob@snu.ac.kr

I. 서 론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 청소년들의 흡연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흡연율이 증가하였다. 남자 중학생은 1988년 1.8%에서 2008년 5.7%로, 여자 중학생은 1991년 1.2%에서 2008년 2.2%로 증가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1988년 23.0%에서 2008년 18.1%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5년 15.7%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2.4% 증가한 결과이다. 여자 고등학생은 1991년 2.4%에서 2008년 3.5%로 1.1% 증가하였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8). 특히 최근 몇 년간 흡연율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띠는 것은 최근 실시되어온 금연 또는 흡연예방 중재 전략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성인 흡연대책 예산에 비해 청소년 흡연대책 예산이 극도로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금연정책에 대한 지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메디컬투데이, 2009)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 대부분의 성인 흡연자들은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청소년의 흡연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니코틴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고, 중증흡연자(heavy-smoker)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7).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기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관상동맥질환, 각종 암 발생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흡연은 그 자체로 건강에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한 적응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다른 일탈 행동, 음주, 약물사용, 가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행행동이다(조희현, 2003).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 시기에 습득한 건강관련행동은 이후에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3; Perry, 1999).

국가적 수준의 보건 정책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 흡연율을 높이는 위험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개선되기 힘든 사회적 요인들을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근 흡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소년들은 흡연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의 해로움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과 학교 등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박은주, 2002). 이에 본 연구는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이론들을 기반으로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족, 교사,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청소년 흡연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성숙과 인격완성을 위한 심리적 변화와 격동을 치르는 시기로서, 청소년기 발달은 유아기나 아동기처럼 예정된 발달 계획을 따른다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정혜경, 2001). 특히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 개념은 관계이다(Youniss et al., 1987; Grotevant et al., 1998). 이는 청소년들이 속한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활동 정도와 태도를 말한다(Karcher, 2001). 특히 전통적인 관계들, 행동들, 그리고 상황들은 비행, 혹은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제공한다(De Civita et al., 1996; Pederson et al., 1997; Turbin et al., 2000).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같은 일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가족(부모), 학교, 종교단체 등의 전통적인 사회체계와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흡연이라는 것은 건강위험행동일 뿐 아니라 비행, 즉 일탈행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흡연과 같은 일탈적 비행행동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 되고, 이러한 흡연경험에 사회적 관계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서 부모(가족), 학교, 종교단체 등의 전통적인 사회체계-즉 우리가 친(親)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나 규범들을 지지하는 사회체계와 유대관계가 있는, 혹은 그 결속이 더욱 강한 청소년들은 가치정립이 이루어지는 혼란스러운 시기의 특성상 유대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규범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해서 흡연 등의 일탈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Bahr et al., 1997; Manson et al., 2000; 김영미, 2005). 특히 Hirchi(1969)는 사회유

대이론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일탈행동을 저지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과 사회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거나 깨어졌을 때 비행과 같은 일탈행동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Pollard 외(1999) 역시 그것이 누구든 타인과 따뜻하고 정서적이며 신뢰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높은 특성이 있는 청소년일지라도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적응 유연성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양상 역시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있어 어떤 사회적 행위자와의 어떤 유대관계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밝혀왔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요인들이 실제로는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가족, 교사,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흡연경험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흡연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1) 가족과의 관계와 청소년 흡연

최근 청소년 흡연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가족구조 등의 외형적 환경 요인들보다 가족 간 관계와 같은 기능적 환경 요인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강윤주 외, 1996; 노성호, 2005). Doherty 외(1994)의 연구에서 가족 기능은 청소년 흡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에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관련 변수들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흡연에 있어서 개인 내적(intrapersonal)인 요소보다는 개인 간(interpersonal)의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Bertrand et al., 1993). 한편 사회통제이론의 창시자인 Hirschi(1969)는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을 친밀하게 할수록, 자녀가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비행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Hirschi, 1969: 89-93). 이와 관련하여 특히 부모의 따뜻함, 걱정, 개입 등의 가족 요인들이 청소년들이 흡연하게 될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

(Chassin et al., 1986; Hundleby et al., 1987). 김준호 외(1995)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특성 중 부모감독, 애정 및 대화 요인 모두가 자녀의 흡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을 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청소년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비록 그들의 부모가 흡연을 한다고 할지라도,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Karcher et al., 2005)고 보고한 연구 등을 보면 부모와의 강력한 유대관계 자체가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 자체가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다.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청소년 본인이 가족과 관계가 좋다고 여길수록 흡연시작이나 흡연수준 증가의 위험성이 감소하였다(Lloyd-Richardson et al., 2002). Slocum 외(1963)는 가족의 구조적 결함보다 가족원간의 불화적 관계성이 청소년 비행에 더 기여한다고 보고했다.

가정폭력 경험 역시 청소년의 흡연과 같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Lewis et al., 1979; 민수홍, 1998). 이때 가정폭력 경험이란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부모 간 폭력에 대한 목격 경험 등을 모두 포함한다(Porter et al., 1980; Carlson, 1990). 이휘곤 외(2005)는 서울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과거력(남학생만 해당), 가족기능과 현재 흡연율의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직접적인 부모와 자녀관계 외에도 부부간 불화관계나 부적응 관계 역시 자녀의 흡연 등 약물남용을 포함한 부적응행동이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et al., 1974).

2) 교사와의 관계와 청소년 흡연

교사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들의 동조에 대한 이익(Stake in conformity)을 증가시킴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킨다. Kang 외(2005)는 청소년들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가질 경우 흡연위험성이 낮아짐을 보였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교사를 꼽았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건강위해 행위와 비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Resnick et al., 1997; Natvig et al., 1999; Lee, 1995; Whang, 1996). 양경희 외(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교사에게서

받는 지지에 대해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교사와의 관계가 다른 사회적 유대관계 요소보다 흡연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제시하였지만, 아직까지 흡연과 교사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3) 친구와의 관계와 청소년 흡연

청소년은 가족보다도 또래들로부터의 사회화 경향이 뚜렷하며, 또래들로부터 인정 받거나 그들과 동류화되기 위해서, 또는 또래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들과의 관계에 있어 흡연과 같은 일탈행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흡연의 사회적 요인으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Krohn et al., 1983; 부정민, 1999; Bauman et al., 1994; Flay et al., 1994; 한지연, 2005). Karcher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높은 청소년들은 흡연하는 친구 수에 상관없이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낮은 청소년보다 흡연 시도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애착관계를 가지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흡연하기가 쉽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Krohn et al., 1983).

그러나 또래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특히 흡연을 하는 친구들과 친한 관계를 가질 경우 흡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 친구와의 애착관계가 일탈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양돈규, 2002). 따라서 보다 자세한 연구를 통해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가족이나 교사와 마찬가지로 유대관계 자체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혹은 친구가 흡연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흡연의 성별 차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성별에 따라 청소년 흡연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우선 남자 청소년은 흡연 및 음주를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간주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고, 반대로 여자 청소년은 흡연 및 음주를 여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간주하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규범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여자 청소년은 그러한 성별규범으로 인해 비행이 통제되거나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신혜섭, 2005). 또한 통제 자체가 성별로 다르게 제공되기도 한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들은 귀가 시간이 엄격하게 주어지고, 그들의 활동 자체가 더 엄격하게 지도, 감독되는 경우가 많다(Belknap, 1996). 이와 같은 강한 사회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 행동인 흡연을 시도하는 것을 억제한다. 마지막으로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 보내는 시간과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비슷한 데 반해 남자 청소년은 부모보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이 부모의 감독 하에서 벗어나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정익중, 2004).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흡연을 포함한 비행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Cernkovich 외(1987)는 애착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성별 비교연구에서 가족적 요인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행에 대해 설명력이 더 높았다는 것을 보였다(12.2% 대 14.2%). 특히 가족 유대의 다양한 차원들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남자 청소년의 비행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 외에 Anderson 외(1999)의 연구에서도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다양한 애착-부모, 친구, 학교에 대한 애착 등-이 비행 심각성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성차를 발견하였는데, 그 한 예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자 청소년이 아닌 남자 청소년의 비행심각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연구는 가족유대가 여자 청소년의 비행에, 후자의 연구는 남자 청소년의 비행에 더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연구들은 가족유대와 비행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어떤 종류의 유대가 남녀청소년

들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드물고, 각각의 연구들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큰 자료를 가지고 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2009년에 조사된 청소년 흡연자 중 매일 흡연을 하는 학생의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평균 14.3세로 조사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0). 다시 말해 중학교 2학년 시기가 청소년의 매일 흡연 시작에 있어 중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03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자료에서 새롭게 조사된 지역사회(이웃) 관련 변수들을 추가해 이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지난 2003년 당시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을 통해 총 3,449명의 청소년들 및 그 부모들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중 2004년 조사에 응하지 않은 343명의 대상자들과 주요변수가 무응답인 72명을 제외한 3,034명의 청소년들 및 그 부모들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변수 및 자료 분석 방법

1) 연구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경험 여부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지난 1년간 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규칙적인 흡연보다는 흡연을 시도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흡연율이나 흡연량보다는 흡연

경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 판단하였다. 설명변수는 크게 사회적 관계 변수, 일반적 특성 변수(개인특성, 사회경제적 배경)로 분류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 변수들은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가족, 교사,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가족과의 관계는 부모애착(6문항), 부모감독(4문항), 피학대 경험(2문항), 형제자매애착(1문항), 부부간 불화(2문항)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 애착(3문항)으로, 친구와의 관계는 친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2문항)와 친한 친구 애착 정도(4문항),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의 원만한 정도(1문항)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개인적 특성인 성별, 거주 지역, 지역특성, 가족 구조, 흡연 친구 수, 스트레스, 음주 여부,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부모의 학력과 직업,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인 가정의 빈곤, 청소년의 한 달 용돈을 고려하였다.

<표 1> 연구 변수 별 문항 수와 문항 내용

영역	요인		변수	문항수	문항내용
종속변수	흡연 여부		흡연경험 여부	1	지난 1년간 담배 피우기
설명변수	사회적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부간 불화	2	부부간의 욕설 및 신체적 다툼
			부모 애착	6	부모의 사랑과 애정, 부모-자녀의 상호이해, 대화
			부모 감독	4	자녀 외출 시 부모의 감독
			피학대 경험	2	부모의 욕설 및 체벌
			형제자매 애착	1	형제자매와의 원만한 관계
		교사와의 관계	교사 애착	3	교사와의 대화, 교사의 사랑과 관심, 교사 존경
			친구와의 관계	친한 친구 노출	2
		친한 친구 애착		4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기대, 동질감 유지 성향, 즐거움, 대화,
		학교친구 애착		1	학교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영역	요인	변수	문항수	문항내용
통제변수	개인의 일반적 특성	성별	1	성별
		거주 지역	1	도시 및 농촌의 거주 지역
		지역특성	4	동네 사람들 간의 친밀도 및 신뢰도, 동네 사람들의 비행행동 감독 및 제지, 도움 기대
		가족 구조	1	부모를 기준으로 분류한 가족구조
		스트레스	17	가정, 학업, 친구, 외모, 물질 스트레스
		흡연 친구 수	1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운 친구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2	아버지(어머니)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2	아버지(어머니)의 직업
		주관적 빈곤	1	주관적인 가정의 빈곤상태 인식
		한 달 용돈	1	한 달 평균 용돈
	음주	음주경험 여부	1	지난 1년간 술 마시기

2) 자료 분석 방법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수가 흡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음주경험 변수는 따로 모형을 만들어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음주경험 변수를 분석 모형에서 따로 취급하게 된 것은, 청소년의 비행행동 특성상 음주를 하는 청소년과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계 변수들의 흡연에 대한 설명력이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음주경험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다중공선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자인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변수에 대한 분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흡연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여러 흡연 요인 특성들이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χ^2 -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음주경험을 제외한 모형(모형 1)과 음주경험까지 모두 포함한 최종 모형(모형 2)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남, 여 청소년 각각에서 사회적 관계 변수들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1, 2를 성별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시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통계 프로그램은 SAS 9.1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 사항을 다음 <표 2>, <표 3>과 같이 살펴보았다. 지난 1년간 흡연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12.1%(367명), 남자 11.7%(177명), 여자 12.5%(190명)로 나타나 여자 중학생에서 흡연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30.1%(914명)로 흡연 경험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 역시 여자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흡연을 한 적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18.8%(569명)이었으며, 그 수는 평균 3.6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재구분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 가정인 경우가 93.4%(2834명)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도시(86.8%)가 많았다. 지역의 특성인 화합도는 전체 평균이 1.97점으로 5점을 만점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 경제상황이 열악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44.5%)과 대졸(37.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직업은 개별적인 직업군에서는 ‘사무 종사자’가 23.2%로 가장 많았지만,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율이 44.4%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육체적 노동자가 58.4%(177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한 달 평균 용돈은 20,000원 이하로 적은 경우가 44.5%(1351명)로 가장 많았다(<표 2>).

<표 2>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	변수값	전체		성별			
				남		여	
		N	%	N	%	N	%
	전 체	3,034	100.0	1,511	49.8	1,523	50.2
흡연경험여부	없음	2,667	87.9	1,334	88.3	1,333	87.5
	있음	367	12.1	177	11.7	190	12.5
가족구조	친부모가정	2,834	93.4	1,416	93.7	1,418	93.1
	그 외 가정	200	6.6	95	6.3	105	6.9
음주경험여부	없음	2,120	69.9	1,185	78.4	935	61.4
	있음	914	30.1	326	21.6	588	38.6
흡연친구	없음	2,465	81.2	1,243	82.3	1,222	80.2
	있음	569	18.8	268	17.7	301	19.8
스트레스	낮음	776	25.6	466	30.8	310	20.4
	보통	1,465	48.3	720	47.7	745	48.9
	높음	793	26.1	325	21.5	468	30.7
거주 지역	도시	2,635	86.8	1,340	88.7	1,295	85.0
	농촌	399	13.2	171	11.3	228	15.0
지역 특성 (화합도)	낮음	890	29.3	472	31.2	418	27.4
	보통	1,432	47.2	699	46.3	733	48.1
	높음	712	23.5	340	22.5	372	24.4
부모학력	초졸 이하	119	3.9	50	3.3	69	4.5
	중졸	247	8.1	130	8.6	117	7.7
	고졸	1,349	44.5	658	43.5	691	45.4
	대졸	1,127	37.1	575	38.1	552	36.2
	대학원 이상	192	6.3	98	6.5	94	6.2
부모직업	비육체적 노동자	1,160	38.2	571	37.8	589	38.7
	육체적 노동자	1,773	58.4	885	58.6	888	58.3
	기타	101	3.3	55	3.6	46	3.0
주관적 빈곤인식	잘 모르겠다	44	1.5	24	1.6	20	1.3
	전혀 그렇지 않다	1,315	43.3	645	42.7	670	4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889	29.3	466	30.8	423	27.8
	보통이다	565	18.6	262	17.3	303	19.9
	그렇다	221	7.3	114	7.5	107	7.0
용돈	적음	1,351	44.5	695	46.0	656	43.1
	보통	1,193	39.3	570	37.7	623	40.9
	많음	490	16.2	246	16.3	244	16.0

대상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 중 부모들의 부부관계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화를 겪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애착과 감독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두 변수 모두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피학대 경험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남자 청소년들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보통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 할 수는 없었다. 교사애착 역시 보통보다 약간 낮았으며 여자 청소년들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이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매우 친한 친구의 수와 그들과 만나는 빈도를 곱한 친구 접촉 정도는 남자의 경우가 더 높았으나, 친한 친구에게 보이는 애착은 여자의 경우가 더 높았다. 연구 대상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의 점수가 약간 더 높았다(<표 3>).

<표 3>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적 관계 특성

변 수	전 체		성 별			
			남		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부관계	1.83	0.92	1.81	0.89	1.85	0.96
부모애착	3.33	0.81	3.26	0.79	3.40	0.82
부모감독	3.21	0.89	3.10	0.88	3.32	0.89
피학대 경험	1.70	0.88	1.73	0.89	1.66	0.88
형제자매관계	2.94	1.34	2.91	1.40	2.97	1.28
교사애착	2.47	0.83	2.53	0.78	2.41	0.87
친구노출	13.42	20.69	16.56	25.62	10.31	13.50
친구애착	4.06	0.66	3.98	0.69	4.14	0.61
학교친구관계	3.92	0.85	3.96	0.86	3.88	0.83
가족과의 관계	1.19	0.59	1.15	0.57	1.24	0.60
교사와의 관계	2.47	0.83	2.53	0.78	2.41	0.87
친구와의 관계	29.18	43.12	35.27	53.83	23.14	27.50

2. 청소년 흡연행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중2시기의 흡연행위

Krohn 외(1983)의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흡연행위를 살펴보면 연간 흡연의 평균 횟수는 한 두 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시험 삼아 혹은 상황에 따라 흡연을 시도해 보는 경우가 많고, 정기적으로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많지 않다는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unter et al., 1980).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흡연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67명 중, 57.5%(211명)가 연 5회 이하의 흡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흡연 행위를 최근 1년간 흡연을 경험해 본 것으로 정의하고 분석해도 무방하다고 여겼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 지난 1년 동안 흡연을 경험한 사람은 총 12.1%(367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거주지별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표 4).

<표 4> 흡연 행위

구 분		흡연군		비흡연군		계	
		N	(%)	N	(%)	N	(%)
전 체		367	(12.10)	2,667	(87.90)	3,034	(100.0)
성별	남	177	(11.71)	1,334	(88.29)	1,511	(100.0)
	여	190	(12.48)	1,333	(87.52)	1,523	(100.0)
지역	도시	316	(11.99)	2,319	(88.01)	2,635	(100.0)
	농촌	51	(12.78)	348	(87.22)	399	(100.0)

2) 청소년의 특성과 흡연경험의 관계에 대한 기초 분석

흡연 여부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간의 단변량 분석을 χ^2 -검정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구조, 음주여부, 흡연친구, 스트레스, 부모의 학력과 직업, 주관적 빈곤, 그리고 한 달 평균 용돈 변수가 청소년의 흡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연구 대상 청소년들은 친부모가정이 아닌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흡연을 더 많이 하였으며,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흡연 친구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흡연

경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중졸, 고졸일 때 흡연을 가장 많이 했으며, 부모가 비육체적 노동자인 경우에 비해 육체적 노동자일 경우가, 육체적 노동자일 경우에 비해 기타일 경우가 청소년 흡연을 높였다. 한편 청소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변수 중 주관적인 빈곤 인식 변수와 흡연 경험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가정의 경제 상황이 열악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인식한 청소년들일수록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그렇다’ 고 대답한 청소년들 다음으로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잘 모르겠다고 하는 대답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용돈이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5> 일반적 특성과 흡연 여부와의 단변량 분석

Characteristic		흡연군 %	비흡연군 %	χ^2
성별	남	11.71	88.29	0.41
	여	12.48	87.52	
거주 지역	도시	11.99	88.01	0.20
	농촌	12.78	87.22	
지역 특성 (화합도)	낮음	13.26	86.74	4.30
	보통	12.43	87.57	
	높음	9.97	90.03	
가족구조	친부모가정	11.68	88.32	7.02**
	그 외 가정	18.00	82.00	
음주여부	없음	3.60	96.40	474.15***
	있음	31.70	68.30	
흡연친구	없음	5.48	94.52	541.65***
	있음	40.77	59.23	
스트레스	낮음	9.54	90.46	25.26***
	보통	10.78	89.22	
	높음	17.02	82.98	
부모학력	초졸 이하	9.24	90.76	18.70***
	중졸	14.98	85.02	
	고졸	14.31	85.69	
	대졸	10.03	89.97	
	대학원 이상	6.77	93.23	

Characteristic		흡연군 %	비흡연군 %	χ^2
부모직업	비육체적 노동자	10.17	89.83	10.80*
	육체적 노동자	12.92	87.08	
	기타	19.80	80.20	
주관적 빈곤	잘 모르겠다	15.91	84.09	18.70***
	전혀 그렇지 않다	10.42	89.5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70	88.30	
	보통이다	12.92	87.08	
	그렇다	20.81	79.19	
용돈	적음	7.62	92.38	73.78***
	보통	12.99	87.01	
	많음	22.24	77.76	

주: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흡연 여부와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적 관계 특성 간의 단변량 분석을 t-검정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표 6〉). 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사회적 관계 변수들이 중학생들의 흡연 경험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중에서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형제자매관계가 좋을수록 흡연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학대 경험과 부부간의 불화관계가 있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덜 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친구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친한 친구가 적거나 그들과 자주 만나지 않을수록, 즉 친한 친구에 자주 노출이 되지 않을수록, 또 친한 친구들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또한 학교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흡연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적 관계 특성과 흡연 여부와의 단변량 분석

Characteristic	흡연군 평균(표준편차)	비흡연군 평균(표준편차)	t
부모애착	3.37(0.79)	3.06(0.84)	6.81***
부모감독	3.25(0.89)	2.90(0.88)	7.16***
피학대 경험	1.65(0.84)	2.07(1.09)	-7.09***
부부관계	1.80(0.90)	2.06(1.06)	-4.48***
형제자매관계	2.97(1.34)	2.76(1.35)	2.84*
교사애착	2.49(0.82)	2.28(0.88)	4.50***
친한 친구 노출	13.03(19.60)	16.27(27.20)	-2.21**
친한 친구 애착	4.04(0.65)	4.21(0.66)	-4.63***
학교친구관계	3.91(0.85)	4.05(0.81)	-3.11*

주: *p<0.05, **p<0.01, ***p<0.001

3)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지난 1년간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검사를 통해 선택한 변수 간에 변수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에서 서술한 대로 음주경험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과 포함한 모형 2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표 7>).

모형 1의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흡연친구, 주관적으로 인식된 가정의 빈곤, 한 달 용돈 수준이, 사회적 관계 특성에서는 부모감독, 피학대 경험, 친한 친구 애착과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의 대상이 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흡연친구가 있는 경우, 가정 경제상황이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한 달 평균 용돈이 보통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흡연을 더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했을수록, 친한 친구와 애착이 높을수록,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흡연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감독 정도가 센 경우 흡연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경험 변수를 추가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는 모형 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던 성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으나, 부모감독과 학교 친구 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흡연친구, 한 달 용돈, 피학대 경험과 친한 친구 애착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음주경험과 흡연친구의 존재였다.

<표 7>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II

구 분	모형 1	모형 2
	OR	OR
일반적 특성		
성별 (남) 여	1.038	0.636**
거주 지역 (도시) 농촌	1.017	1.076
지역 화합도 (낮음)		
보통	0.923	0.951
높음	0.820	0.883
가족구조 (친부모가정)		
그 외 가정	1.052	1.180
흡연친구 (없음)		
있음	9.738***	6.524***
스트레스 (낮음)		
보통	0.887	0.748
높음	1.095	0.791
부모학력 (초졸 이하)		
중졸	1.746	1.592
고졸	1.896	2.138
대졸	1.189	1.180
대학원 이상	0.983	1.030
부모직업 (비육체적 노동자)		
육체적 노동자	0.912	0.892
기타	1.683	1.966
주관적 빈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1.056	1.064

구 분	모형 1	모형 2
	OR	OR
그렇다	1.644*	1.666*
잘 모르겠다	1.647	1.730
한 달 용돈 (낮음)		
보통	1.497**	1.386*
높음	2.436***	1.900***
사회적 관계		
부모애착	0.907	0.915
부모감독	0.786**	0.853
피학대 경험	1.403***	1.396***
부부간 불화	0.965	0.947
형제자매 관계	1.008	1.019
교사애착	0.966	1.059
친한친구접촉	1.000	1.0008
친한친구애착	1.416**	1.308*
학교친구관계	1.189*	1.173
음주여부 (없음)		
있음		8.331***
모형적합도(2LL)	1682.39	1477.58

주: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 및 기타 변수들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흡연경험여부로 놓고 위의 분석에서 흡연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남녀 청소년 각각의 사회적 관계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첫째, 모형 1의 성별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서 흡연친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한 달 평균 용돈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친한 친구 애착이 높을수록 흡연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흡연에만 영향을 끼친 변수는 부모의 감독이었다. 한편 여자 청소년은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부모의 직업이 기타로 분류된 경우, 한 달 용돈이 보통인 경우에도 흡연을 더 경험하였으며, 사

회적 관계 특성 중 학교 친구와의 관계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관계 특성에 주목하여 남녀 청소년 흡연경험을 살펴보면, 남자들에게는 부모의 감독이, 여자들에게는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음주경험을 포함한 모형 2의 성별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서 흡연친구가 있는 경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 흡연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분석 결과와 달리 한 달 용돈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들에서는 한 달 용돈이 많은 경우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감독 역시 계속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자 청소년에게만 영향을 끼친 변수는 스트레스, 부모의 학력과 직업, 그리고 학교친구관계였다. 모형 2의 분석결과에서도 음주경험은 흡연친구의 존재와 함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였다.

<표 8> 성별 흡연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수	남		여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OR	OR	OR	OR
일반적 특성				
거주 지역 (도시) 농촌	1.318	1.327	0.756	0.824
지역 화합도 (낮음)				
보통	0.797	0.799	1.080	1.128
높음	0.862	0.815	0.747	0.870
가족구조 (친부모가정)				
그 외 가정	0.753	0.823	1.431	1.669
흡연친구 (없음)				
있음	9.353***	6.651***	11.926***	7.247***
스트레스 (낮음)				
보통	0.939	0.778	0.755	0.659
높음	1.579	1.159	0.713	0.502*
부모학력 (초졸 이하)				
중졸	1.258	1.051	2.523	2.496

변 수	남		여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OR	OR	OR	OR
고졸	1.389	1.576	2.886*	2.990*
대졸	1.059	1.034	1.435	1.338
대학원 이상	0.935	0.874	1.052	1.347
부모직업 (비육체적 노동자)				
육체적 노동자	0.821	0.781	1.029	1.039
기타	1.073	1.273	2.513*	3.042*
주관적 빈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0.778	0.706	1.338	1.466
그렇다	1.631	1.470	1.728	1.885
잘 모르겠다	0.994	0.813	2.842	3.260
한 달 용돈 (낮음)				
보통	1.403	1.414	1.623*	1.296
높음	2.464***	1.952*	2.453***	1.709
사회적 관계				
부모애착	1.052	0.995	0.764	0.847
부모감독	0.652***	0.689**	0.938	1.019
피학대 경험	1.363**	1.320*	1.435**	1.467**
부부간 불화	0.896	0.945	1.064	0.974
형제자매관계	0.985	0.988	1.025	1.045
교사애착	0.980	1.121	0.979	1.023
친한친구접촉	1.001	1.002	0.994	0.990
친한친구애착	1.370*	1.273	1.521*	1.399
학교친구관계	1.021	0.980	1.398**	1.411**
음주여부 (없음)				
있음		6.187***		15.593***
모형적합도(2LL)	839.14	755.49	809.82	684.45

주: *p<0.05, **p<0.01, ***p<0.001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 경험에 사회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일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 교사, 친구와의 관계와 흡연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통제 변수들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 이들은 모두 흡연 경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특성들 중 음주경험을 제외한 변수들을 통제하고 난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 중 부모감독이 청소년 흡연 경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감독이나 통제가 청소년 흡연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었다(Hirchi, 1969; 김준호 외, 1995; 강윤주 외, 1996; Griesbach 외, 2003). 또한 부모에 의해 피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흡연 경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 Lewis 외(1979), 민수홍(1998), 이순래(2004), 이휘곤 외(2005)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교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 흡연 경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와의 관계 중 친한 친구 애착과 학교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는 흡연 경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Krohn 외(1983), Karcher 외(2005)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음주경험을 통제 변수에 포함한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는 부모감독과 학교 친구 관계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었으며, 음주경험과 흡연친구의 존재가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이 남자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로 나누어 위와 동일한 방법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에서만 유의미하게 흡연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한 달 용돈, 부모감독이었으며, 여자에서만 유의미하게 흡연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높은 스트레스, 부모의 직업과 학력, 그리고 학교 친구와의 관계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감독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Belknap(1996)와 정익중(2004)의 선행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의 공통된 특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생애 시기적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라도 개인들이 흡연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과 경로는 제각각이며 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

은 좀 더 세분화된 흡연문제의 원인 분석은 이후의 적절한 청소년 흡연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흡연 경험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청소년들이 불건강행위이며 비행행위인 흡연을 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순간적인 선택이나 기호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을 다차원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위해 지지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현재 실시되는 금연교육 및 홍보대책에 있어 청소년이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중요성을 알린다면 국민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어떤 청소년들만이 흡연을 경험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사회적 관계 특성에 주목하여 볼 때 부모의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 친한 친구와 애착이 높은 경우의 청소년들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드러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 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돕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학교 친구들과의 부정적 동류화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계라는 특성에 집중하여 새로운 인식과 대안 모색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종속변수인 흡연행위의 세분화가 가능하지 않아, 전체 흡연자들을 흡연수준별로 분류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된 가족과 교사, 친구의 3가지 차원 외에도 청소년들을 둘러싼 매우 다양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차원들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대관계의 정도에 따른 청소년 흡연의 차이를 검증하였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2003년의 1개년도 자료에 더하여 2008년까지 패널로 조사된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흡연경험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청소년 흡연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음주 경험과 흡연 경험 모두를 기준으로 한 청소년 흡연지도 그리기 연구, 혹은 흡연친구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 흡연친구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향후의 연구를 통해 흡연을 사회적 행위로 파악하고 더 자세히 이해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를 확보하여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윤주·서정제(1996).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요인.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3권 제1호, pp. 28-44.
- 김영미(2005).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 통제적 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 151-178.
- 김준호·박정선(1995).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pp. 162-175).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실(2001). 청소년의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 및 흡연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31권 제4호, pp. 641-655.
- 노성호(2005). 청소년의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pp. 583-605).
- 동아일보 1999. 11. 27일자 기사 : 10대 흡연을 세계최고 불명예.
- 메디컬투데이 2009. 10. 06일자 기사 : 성인 대비 청소년 흡연을 47%, 대책 예산 7%(?).
- 민수홍(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선희·전경자(2007). 중학생의 흡연시작 및 흡연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1호, pp. 5-27.
- 박은주(2002). 청소년의 흡연실태 및 관련요인-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 종(1993). 대학 신입생들의 흡연과 건강관련 행위 및 자각 증상의 연관성.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부정민(1999). 사회적 요인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2005). 가정폭력 요인과 가족구조요인이 남녀 학생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17권 제2호, pp. 63-88.
- 양경희·김영희·이정란(2005). 중학생의 흡연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 40-48.
- 양돈규(2002). 대학 신입생들의 음주 및 흡연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pp. 236-241).

- 이순래(2004).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패널자료 발표 자료집. 서울: 청소년개발원.
- 이지원(1997). 청소년의 흡연과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곤 · 황환식 · 박훈기 · 이정권(2005). 청소년 흡연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가정 의학회지, 제26권, pp. 138-144.
- 정익중(2004). 청소년 비행의 성별 차이. 청소년패널자료 발표 자료집.
- 정혜경(2001). 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제31권 제4호, pp. 610-618.
- 질병관리본부(2010). 제5차(200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서울: 질병관리본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8). http://www.kash.or.kr/img/young_rate.gif (2011.09.3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3). http://www.nypi.re.kr/panel/jung_successrate.asp?chk=j2003 (2009.2.15).
- 한지연(2005). 청소년 흡연과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사회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os, A. et al.(1998). Women's magazines and tobacco in Europe. *Lancet*, Vol. 352, pp. 786-787.
- Anderson, B., Holmes, M., and Ostresh, E.(1999). Male and Female Delinquents' Attachments and Effects of Attachments on Severity of Self-Reported Delinquenc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26, pp. 435-452.
- Bauman, K., and Ennett, S.(1994). Tobacco Use by Black and White Adolescents: the Validity of self-repor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4, pp. 226-236.
- Bertrand, L., and Abernathy, T.(1993). Predicting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 using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pproache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63, pp. 98-103.
- Belknap, R.(1996). *My freedom, my life: Voices of moral conflict, separations, and connections in women who have experienced abuse*. Wayne Status University.

- Carlson, B.(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5, pp. 285-299.
- Cernkovich, S., and Giordano, P.(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5, pp. 295-321.
- Chassin, L., Presson, C., Sherman, S., Montello, D., and McGrew, J.(1986). Changes in peer and parent influence during adolescence: Longitudinal versus cross-sectional perspectives on smoking init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pp. 327-334.
- De Civita, M., and Pagani, L.(1996). Familial constraints on the initiation of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An elaboration of social bonding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2, pp. 177-190.
- Doherty, W., and Allen, W.(1994). Family Functioning and Parental Smoking as Predictors of Adolescent Cigarette Use: A six-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8, pp. 347-353.
- Flay, B. et al.(1994). Differential influence of parental smoking and friends' smoking on adolescent initiation and escalation of smok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5, pp. 248-265.
- Grotevant, H., and Cooper, C.(1998).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adolescent development: Review and prospects for research on identity, relationship, and context. In E. Skoe., E. Aspaas., and A. Von der Lippe(Eds.),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cross national and life span perspective*(pp. 3-37). New York: Routledge.
- Hastings, H., and MacFadyen, L.(2000). A day in the life of an advertising man: Review of internal documents from the UK tobacco industry's principle advertising agencies.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21, pp. 366-371.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ndleby, J., and Mercer, G.(1987). Family and Friends as social environm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young adolescents; use of alcohol, tobacco, and marijuan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9, pp. 151-164.
- Hunter, S. et al.(1980). Cigarette smoking and tobacco usag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eventive Medicine*, Vol. 9, pp. 701-712.
- Johnson, S., and Lobitz, G.(1974). The personal and marital adjustment of parents as relates to observed child deviance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iatry*, Vol. 2, pp. 192-207.
- Johnston, L. et al.(1993).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from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1975-1992. Vol. 1: Secondary school studen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Lee, S., and Jeon, E.(2001).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mok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8, pp. 203-217.
- Lewis, D., Shanok, J., and Glaser, G.(1979). Violent juvenile delinquents: Psychiatric, neurological, psychological and abuse factors. *Journal of Americ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18, pp. 307-319.
- Lloyd-Richardson, E., Papandonatos, G., Kazura, A., Stanton, C., and Niaura, R.(2002). Differentiating stages of smoking intensity among adolescents: Stage-specific psychological and social influ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70, pp. 998-1009.
- Kang, L., and Kim, H.(2005).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cigarette smoking among Korean male high school students. *Research on Consumption and Culture*, Vol. 8, pp. 121-142.
- Karcher, M.(2001). Measuring adolescent connectedness: Four validation studie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archer, M., and Finn, L.(2005). How connectedness contributes to experimental smoking among rural youth: Developmental and ecological

- analyse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Vol. 26 No. 1, pp. 25-36.
- Krohn, M. et al.(1983). Social bonding theory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4, pp. 337-349.
- Lee, E.(1995). *Relation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o depression and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Marcos, A., Barr, S., and Johnson, R.(1986). Test of a Bonding/Association Theory of Adolescent Drug Use. *Social Forces*, Vol. 65, pp. 135-16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6). *The thir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II), 2005: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vig, G., Albrektsen, G., Andersen, N., and Qvarnstrom, V.(1999). School related psychosomatic symptom among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Scholl Health*, Vol. 69 No. 91, pp. 362-368.
- NHS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1999). Preventing the uptake of smoking in young people. *Effective Health Care*, Vol. 5, pp. 1-12.
- Pederson, L. et al.(1997). Are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smoking in grade-6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Vol. 22 No. 2, pp. 169-181.
- Perry, C.(1999). *Creating health behavior change: How to develop community wide program for yout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Pollard, J. et al.(1999). Development of a school-based survey measuring risk and protective of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populations. *Manuscript under review*, Vol. 55, pp. 109-132.
- Porter, B., and O'Leary, K.(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8, pp. 287-295.
- Reid, D.(1996). Tobacco control: Overview. *British Medical Bulletin*, Vol. 52, pp. 108-120.
- Resnick, M., Harris, K., and Shew, M.(1997). Protecting adolescent from

- har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78 No. 10, pp. 823-832.
- Slocum, W., and Stone, C.(1963). Family, culture, patterns, and delinquent-type behavior. *Marriage Fam Living*, Vol. 25, pp. 202-208.
- Stead, M. et al.(1996). Preventing adolescent smoking: A review of options. *Health Education Journal*, Vol. 55, pp. 31-54.
- Turbin, M. et al.(2000).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Health-related behavior or normative transgression?. *Preventive Science*, Vol. 1, pp. 115-124.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87). *Smoking and health: A national status report*(HHS/PHS/CDC Report No. 87-8396).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hang, Y.(1996). *Study on social-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 peer-group and psychosocial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Ewha Womens University.
- Youniss, J., and Ketterlinus, R.(1987). Communication and connectedness in mother and father-adolescent relationships. Special Issue: Sex differences in family relations at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Vol. 16 No. 3, pp. 265-280.

ABSTRACT

The Impa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

Kim, Ji-Eun* · Cho, Byong-Hee**

Backgrou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a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smoking behavior by adolescents. Moreover, it is a valuable exercise that we examine the specific effects of these social relationships in terms of gender.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different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like family, teachers, and friends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s. The second objective is to explain the different effects of gendering social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s. Metho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sourced from the 2003 First Korean Adolescents' Penal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data included 3,034 adolescents attending a middle school as second grader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logistic regression method. The data was processed by SAS 9.1. Results: 11.7% of the male, and 12.5% of the female adolescents had engaged in smoking. Their social relationships impacted upon the smoking experiences the adolescents. The results from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to smoking experience after adjusting for other variables. It also indicates that there are different effects on smoking experi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in social relationships. Conclusion: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social

* Division of Health Promotion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ionship's upon smoking experience, efforts to build supportive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environments need to be made. It is important to adapt any new strategy to include social group counseling, the empowerment of adolescent networks, and basic socio-economical support.

Key Words : smoking, Korean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 family,
teacher, friends

투고일 : 9월 15일, 심사일 : 12월 8일, 심사완료일 : 12월 8일